



인터뷰

김종재 김근태민주주의학교 교장

“더 나은 민주주의 함께 만들겠다”

고(故) 김근태 의장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공감하고 실천하는 김근태민주주의학교가 18일 개강한다. 광주전남한반도포럼이 주최하고 김근태민주주의학교 주관,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가 후원하는 제1기 김근태민주주의학교 강좌는 18일 오후 4시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의실에서 첫 강의를 시작한다. 김근태민주주의학교 김종재(78) 교장으로부터 강좌 개설 배경과 김근태 전 의장의 정치적 유산,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들어본다.

▲먼저 김근태민주주의학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달라.

-삶 그 자체가 민주주의였던 김근태 의장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돌아보고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고자 학교를 열게 됐다. 이번 강좌는 김근태민주주의학교를 여는 첫 강좌다. 그래서 김근태 의장과 인연이 깊은 분들을 먼저 모셨다. 제1강 함세웅 신부가 ‘김근태의 삶과 사상’, 제2강 이인영 국회의원이 ‘한반도 평화의 길’, 제3강은 우원식 국회의원이 ‘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강연한다. 그리고 제4강은 현장탐방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제4강좌는 삶이 그대로 민주주의 그 자체였던 김근태 의장의 생애와 정신을 기리는 김근태 7주기 추모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근태 의장과 인연은.
-‘굳이 어떤 인연이다’고 말하기 보다는 김근태 의장은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같음하고자 한다.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사회에 기억될만한 사회지도자가 됐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 함께 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시대를 읽는 시선의 높이가 굉장히 탁월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이었다. 지금도 그 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림과 감사하다.

▲김근태민주주의학교가 출범하게 된 동기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 9년 간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모습을 봤다.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에 민주주의가 후퇴했었다. 그리고 촛불혁명을 통해 다시 되찾은 민주주의를 우리는 목도했다. 세계 많은 나라들처럼 우리도 수 많은 회생과 헌신을 통해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다. 다시는 역사가 후퇴



프로필 ▲전남대 일반대학원장 ▲전남대 평생교육원장 ▲새평화야카 데미 이사장 ▲전남대 명예교수

‘인권운동가’ 김근태 의장 통해 평화·통일정신 공감 내년부터 정치·경제·사회적 담론 등 강좌 개설 추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크다. 그래서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을 다시 서랍에서 끄집어 내게 된 것이다.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권운동가이며 신사였던 사람, 잊지 말아야 할 사람 김근태 의장의 생애와 평가를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열어가자는 것이다.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갈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그 공

감을 토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8 민주주의자 김근태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강좌를 열게 됐는데 이번 강좌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번 강좌는 김근태 의장을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그러면서도 우리 현실에서 당장에 필요한 담론을 펼쳐보자는 것이다. 핵심 메시지는 대한민국 현실은 아직도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지

속발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는데 필요한 화두를 꺼내볼 것이다.

▲현 세대가 배워야 할 김근태 의장의 시대적 가치는 무엇인가.

-김근태 의장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심고 뿌리내리고 꽃피우는 데 소중한 힘이 됐다. 사람 중심, 더불어 살자는 공동체를 향한 외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남북화해협력과 평화통일, 경제민주화는 다시 출발선에 섰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은 ‘민주’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 지금 세대는 김근태 의장의 민주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김근태가 외친 ‘민주’의 가치는 아직도 시대정신이고 우리 사회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김근태 의장이 남긴 정치적 유산은.

-불의와 부정과 맞서 양심을 갖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린 ‘개혁성’이다. 정치가 시정잡배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바른 철학을 가진 자들이 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도덕성’이다. 우리 정치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김근태 의장이 그림자. 지금 우리가 김근태 의장을 통해 다시 개혁성과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 결국 김근태 의장은 과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향후 김근태민주주의학교의 운영 계획은.

-2018년은 김근태 의장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2019년 부터는 구체적인 강좌들을 열어볼 생각이다. 광주·전남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담론을 강좌로 만들 것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들과 함께 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강을 앞두고 시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온 장본인들이다. 누구보다 김근태 의장을 사랑하고 아끼신 분들이다. 김근태민주주의학교를 그래서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바람에 걸맞는 강좌를 만들어 갈 것이다. 민주주의, 평화통일, 지속가능한 국가 등 시도민들이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 ‘행복한 광주전남’을 만드는데 김근태민주주의학교가 함께 할 것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김재정기자
/사진=김애리기자

광주시, 김장철 다소비식품 합동점검

19-23일 고춧가루·김치류 제조업체 등 100곳 대상

광주시는 김장철을 대비해 배추, 무, 고춧가루, 젓갈류 등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관계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5개반 26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점검대상은 고춧가루 식품제조업 15곳, 젓갈류 식품제조업 12곳, 김치류 식품제조업 21곳, 향신료조제품 3곳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49곳 등 100곳이다.

합동점검반은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등 제조라인의 청결관리 ▲유통기한 경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자가품질검사 이행 지시수 수질검사 실시 ▲생산 및 작업일지, 거래기록부 및 원료수불 관련서류 비치 ▲고추 외의 다른 물질 첨가 ▲중량을 늘릴 목적으로 물을 첨가해서 제조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광주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품목 제정지,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김다이지자

말바우·양동시장 주변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기대

어르신 보행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말바우시장과 양동시장 주변에 무단횡단 금지 시설이 설치된다.

광주시는 17일부터 이틀간 ▲말바우시장 주변 통일로약국-현약국 간 200m, ▲양동시장 주변 양동초교 앞 육교-중양신경외과의원 간 220m 구간 도로 중앙에 울타리 형태의 무단횡단 금지 시설을 설치한다.

말바우시장은 고령자 등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으로 올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명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12일 광주시와 경찰청, 북구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이 현장 합동점검을 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양동시장은 시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양동초교 학생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양동초교 앞 육교가 설치돼 있지만 무단횡단이 자주 발생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다이지자

市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신청사 이전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가 새로운 청사를 건립해 15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직원 및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개소식은 신청사 건립 경과보고, 현판 제막 행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동부사업소는 남광주시장 주변 숙박업소 골목에 위치해 민원인의 주차 불편과 노후화된 환경으로 불편사항

이 많았다.

신청사는 동구 지원로 41번지 지원배수지 내에 연면적 872㎡, 2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소태역 3번 출구에서 600여 m 지점으로 무등중학교를 지나 대야아파트 뒤편에 있다.

이번 신청사 이전에 따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는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을 위한 최상의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다이지자

최경환, 오늘 ‘김대중 리더십’ 조선대 특강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은 16일 오후 조선대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김대중 리더십’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갖는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와 함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실사구시의 리더십 ▲김대중의 말과 글의 리더십 등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활동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을 소개한다.



최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섬소년이 대통령이 되고, 사형수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드라마틱한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 냈고 그 바탕에는 가치와 철학을 지키며 동시에 현실에서 성공하는 독특한 리더십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불교어린이 청소년포교을 위한 모연법회>

"리틀 붓다 1만 공덕주를 모십니다!"

자비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불교적 가르침으로 미래세대의 주인, 당당한 세계의 주역이 될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밝은 희망과 힘찬 용기를 심어주고 광주·전남 지역의 어린이청소년 불자를 양성하기 위해 출범한 우리단체는 사)동련과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 및 자체 사업을 통해 포교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바 우리단체와 활동을 널리 홍보하여 어린이청소년활동의 중요성과 활동방향을 공유하고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 불교어린이청소년 포교의 기틀을 만들고자 합니다.

일시 : 2018년 12월 1일(토) 오후 4시 장소 : 충장로 관음사 3층 대법당

- 주최·주관 : 광주·전남 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
- 공동주최 : 사)동연 광주지구, 사)광주파라미타청소년협회
- 문의 : 062)374-1311

리틀붓다 1만 공덕주 모연 법회(오후4시) 식순	
식전행사	어린이 청소년 공현 (정광교)
개회선언	사회자 (명진스님)
삼귀의 반야심경	무등산 약사사 주지 도무스님 빛고를 콰이어 합창단
내빈소개	
환영사	도성스님(이정연 대표, 복암사)
취지문	소운스님(광주파라미타 청소년협회장)
축사	광주불교연합회장 신광사 동현스님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축하곡 합창	빛고를 콰이어 합창단
장학금 전달	청소년 5명(수여 대표 도성스님)
사업보고	지장스님(영상 및 ppt자료)
1만 공덕주 모연 법문	도계스님(이정연 이사, 소원정사)
축하공연	
	어린이
	정률스님
사홍서원	합창단